

갑오경장기의 문체

김 형 철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I. 머리말

갑오경장은 그것을 개화기의 출발로 인식하든 혹은 중간 단계(하나의 전환점)로 인식하든 관계 없이, 개화기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핵심 사항으로 인식된다. 본고에서는 ‘갑오경장기의 문체’를 ‘개화기의 문체’와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잡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런데, 개화기 문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성과물¹⁾이 있고, 이번 특집에서의 ‘문자 사용 양상’과 ‘국문 한문 사용 논쟁’은 사실상 개화기의 문체를 논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역시 이번 특집의 ‘어휘’와 ‘문법’도 개화기 문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문체의 개념을 ‘문자 사용 양상’ 중심에서 ‘문장 표현 양상’ 중심으로 바꾸고, ‘문체소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시기의 문체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어사에서의 개화기는 일정한 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기보다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말한다. ‘개화기’라는 용어가 국어에 새로운 언어 요

1) ‘개화기 문체’라는 제목이 직접 붙었거나 이 시기의 문헌을 대상으로 한 문체 연구에만 국한해도 “김영덕(1971), 표성수(1971), 유문수(1975), 려중동(1977), 남기심(1977), 이기문(1984), 민현식(1984, 1991, 1994), 김형철(1985, 1987), 최태영(1986), 조규태(1991), 김인선(1991), 심재기(19927, 1994)” 등이 있다.

소들의 등장을 강조한 것이라면, '과도기'라는 용어는 새로운 언어 요소들의 등장에 따른 신·구 요소 간의 갈등과 공존 현상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도기는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게 마련인데, 개화기의 문체 양상도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다양한 문체 양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 문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는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보장될 만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독특한 문체보다 시대적 문체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시대 정신(계몽, 개혁, 일상성, 보도성, 토론성 등)이 반영된 시대적 문체의 연구로서는 언어학적 방향의 문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체 양상은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것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체를 포괄하며, 언어 형식의 차원에서나 그 내용의 면에서 확인되는 문체소의 분석을 통해 규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갑오경장기의 문체 양상

문체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요소를 문체소(文體素)라 할 수 있는데, 문체소에는 크게 나누어 표기 요소, 어휘 요소, 구문 요소 등이 있다. 표기, 어휘, 구문의 각 문체 요소는 독자적으로 문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반영된다. 즉 표기 요소가 국한자이면 어휘 요소에 한자어 또는 한문투의 어휘가 많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구문 요소에도 한문 구조의 영향이 많이 남게 되어 직역문 어체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먼저 갑오경장기의 각 문헌에 나타나는 예문을 통해 문체를 분류해 보기로 한다.

- (1) 地球는 吾人의 住居하는 世界니 亦遊星의 一이라 (서유1)
- (2) 是故로 古聖이 曰 孝란 者는 卍親을 事하는 卍오 梯란 者는 卍長을 事하는 卍오 慈란 者는 卍衆을 使하는 卍라 하시니라 (소학 1)
- (3) 한 짜에 한 老人이 잇서 年이 六十이 넘은지라 一生 中에 사 가진 田畠을 三子 의게 分與하고 다만 錢兩을 남은 櫃를 가졌더니 一日은 그 三子를 불러 갖가지 안치고 일으키를 汝等 中에 自今으로 三個月 동안에 人事 中에 最善한 일을 行하는 者 | 잇시면 이 櫃를 주리라 (국소 10-11)
- (4) 大概 나무는 每年한 썩질式 주라니 그런 故로 몇히 木은 줄을 알고조 하면 즐기를 ㅼ여니서 그 ㅼ리를 보면 ㅼ글게 도라간 나무결 數호로 ㅼ웃 아-

- 니 또 그 中心에 있는 조그마한 곁은 初年에 싱긴 거시되다 (심상 2:7)
- (5) 경무관 니똥한이 그복힉공흙. 원산 경무관 니명건 의원면본관(독립3 관보)
- (6) 인쓰리스 슝름의 썸앗긴 빅 되야 인햐야 인쓰리스 속국이 되니 (한성 3:15)
- (7) 미일 신문은 국년에 츠옴으로 미일 출판한 신문이온디 톤설 잡보에 긴요하고
 즐미 잇는 말이 만스오니 첨군즈는 만이 슝들 보시오 (황성 1:4)

표기 요소에 따르면 (1)-(4)는 국한문체, (5)-(7) 국문체로 나누어지지만, 어휘 요소와 구문 요소를 고려하면 더욱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1)은 한자어를 모두 한자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고유어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까지도 한자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우리들이 살고 있는 → 썸의 住居 ㅎ는)는 점에서, (2)는 '是故로, 孝란 者, 事ㅎ는, 使ㅎ는, ㅂ(所) |오' 같은 어휘 소 뿐만 아니라 '曰...라 ㅎ시니라, ㅂ...ㅎ는 ㅂ오' 같은 직역 연해문식 문장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5)는 한글로 표기 되었지만 한문을 음독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직역문어체'라 부르기로 한다.

(3)은 "年(나이), 三子(세 아들), 分與(나누어 주고), 汝等(너희들), 自今(지금 부터), 人事(한 일), 最善ㅎ" 등 어휘 요소만 문어체적이고, 문장 구성은 구어체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6)은 'ㅂ(所), 인햐야' 등 문어체적 어휘 요소가 있지만, 문장구성이 구어체라는 점에서 '의역문어체'라 하기로 한다.

반면에, (4)와 (7)에는 '그런 故로, 좃츄 아느니, 거시되다, 첨군즈' 등 어휘 요소에 문어체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이 언문일치에 가까우므로 '구어체'라 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문체를 문체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²⁾

형식(표기 요소)	내용(어휘, 구문 요소)
한 문 체	직역문어체
국한문체	의역문어체
국 문 체	구 어 체

2) 조규태(1991:762)에서는 국한문혼용문을 '한주언중문(漢主諺從文), 언주한중문(諺主漢從文), 한주국중문(漢主國從文), 국주한중문(國主漢從文)' 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민현식(1994:38)에서는 언어를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 4가지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는 그 성격상 모두 '문어'에 해당된다.

1. 표기 요소

표기 요소에 따른 문체의 종류에는 ‘국문체, 국한문체, 한문체’ 등이 있는데, 이들 문체의 생성과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문체 연구에서 상당히 논의되었다.

여기서는 갑오경장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서구 고유 명사의 다양한 표기 양상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국가명	인명	지명	표기 요소	어휘 요소
A	인그리스	예 수	논 돈	한 글	외 래 어
B	영국 [영길리]	야 소	x	한 글	한 자 어
C ³⁾	英國 [英吉利]	耶 蘇	倫 敦	한 자	한 자 어
D	English	Jesus	London	로 마 자	외 국 어

서구 고유 명사는 국문체의 문헌에는 A, B류가 가능하며, 국한문체의 문헌에는 A, B, C류가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헌 전체를 통해 볼 때 A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독립>의 국가명에만 B류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서유>에는 A, C류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도 서구 국가명으로서 A류(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B류(미국, 영국, 독일)가 대등한 세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갑오경장기의 문헌에는 아직 D류는 보이지 않는다. 서구 고유 명사의 경우 국한문체의 문장에도 주로 A류가 사용되어 구어체적인 성격을 더 보탠다고 할 수 있다.

2. 어휘 요소

어휘가 문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비율, 한문투어의 사용 빈도, 전이어의 사용 양상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3) C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서구어를 ‘음역’, ‘음역+의역’, 또는 ‘의역’한 것을 표기 요소까지 차용하여 쓴 것이다.
 ① 음역 (Europe→歐羅巴)
 ② 음역+의역 (North America→北亞美利加, English→英國)
 ③ 의역 (Pacific Ocean→太平洋)

1)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비율

성경류는 대체로 동일 원문에 대한 초간, 중간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 분석의 자료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어휘 요소의 경우 직접 대비가 가능하다.

- (8) a. 예수 산에 니리미 허다한 사롬이 좃즈니 빅나풍 잇는 자 나아와 절허여
 같오되 쥬 즐기시면 능히 나롤 성케 흐리이다 하니 (로스본 마태복음8)
- b. 예수 | 山에서 下來하시니 許多의 衆이 從하느니라 一羣者가 就拜하야 曰
 主의셔 萬一 亨고져 하시면 能히 저를 潔케 하시리이다 (聖經全書 마태복음
 8)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어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b	a	b
1 누리다	下來하다	9 삼가	慎하다
2 좃다	從하다	10 고치 말고	言치 말고
3 빅나풍 잇는 자	一羣者	11 가다	往하다
4 나아와 절하다	就拜하다	12 제사의게	祭司長의게
5 성케	潔케	13 보이다	示하다
6 손	手	14 디리다	獻하다
7 믿지다	捫다	15 못 사롬	衆人
8 간정하다	潔함을 受하다	16 간증을 삼다	證하다

위의 비교에서 동일 시기의 문헌이라도 표기 요소의 다름에 따라 어휘 요소의 차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은 초기부터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문체를 사용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서 국한문체의 성경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때까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의 요구가 얼마나 컸던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와 같이 표기 요소의 선택은 독자의 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문류는 성경류와는 달리, 동일 내용(혹은 동일 원문)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어휘 요소의 직접 대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신문에 등장하

는 광고문은 그 문장의 성격상 어느 다른 종류의 문장보다 동질성이 확보되므로, 어휘 요소의 대비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 (9) a. 신문을 둘노 정흐든지 일년간으로 정하여 사보고 스분 이는 경동 독립신문사로 와서 돈을 미리 내고 성명과 집이 어더라고 적어 노코 가면 호로 걸어 신문을 보내줄 터이니 신문 보고 스분 이는 속히 성명을 보내기 바라음(독립 1). 신문갑 혼장 동전 혼푼 혼돌치 동전 십이전 일년치 일원삼십전 경향간에 누구든지 이 신문을 바다 파는 이는 미장에 리조 엽전 혼푼 (독립 8)
- b. 兪君者는 此 新聞을 買覽코져 ㅎ시거든 尊性華卿과 居住統戶를 分明이 記錄하야 本社로 送傳ㅎ시면 本社에서는 每日 早朝에 逐號信發호오리다 新聞價는 每張에 葉錢 五分이오 一期에 葉錢 一兩이오 六期先給에 葉錢 五兩五錢이오 外方에서 보시는 이는 以上定價 外에 郵票價만 添入호터이오니 以此 照亮호와 豫先通知호소서 (황성 1:1)

(9)의 a, b는 각각 자기 신문을 많이 사서 보라는 내용의 신문사 광고인데, 표기 요소의 차이에 따라 어휘 요소에도 많은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다.

a	b	a	b
1 사고 스분 이는	買覽코져 ㅎ시거든	7 보내기	送傳
2 미리 내고	先給에	8. 신문갑	新聞價
3 성명	尊性華卿	9 혼장에(혼푼)	每張에(五分)
4 집이 어더라고	居住統戶를	10 혼돌치	一期에
5 적어	記錄하야	11. 이 신문	此新聞
6 호로 걸어 보내 줄 터이니	逐號信發호오리다		

갑오경장기의 문헌별 고유어·한자어의 사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김형철 1987:37).

〈도표1〉

문헌	어휘 및 표기	한 자 어		합 계
	고 유 어	한 글	한 자	
로 스 본	70 (63%)	41 (37%)	×	111
독립신문 황성신문	130 (53.1%)	115 (46.9%)	×	245
	8 (4.8%)	×	157 (95.2%)	165
국민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	46 (28%)	×	118 (72%)	164
	58 (61%)	3 (3.2%)	34 (35.8%)	95

※ 조사 범위는 “로스본(마태복음 8장 전체), 독립신문(창간호 논설), 황성신문(창간호 사설), 국민소학독본(23-24 蜂房), 신정심상소학(3:32-33 蜜蜂)”이다.

〈로스본〉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이 63%, 37%로 고유어의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나, “빙문(聘門), 제사장(祭司長), 선지(先知), 도슈(郡縣), 힐문(閭), 몰약(沒藥), 응험(應驗)” 등과 같은 어려운 한자어가 많고, ‘승하여(3:11), 허하라(3:15), 바(18:25)’ 등 한문투어가 많이 사용되어 문어체 성격이 짙다.

〈독립〉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비슷하게 사용되어 고유어의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사실은 〈독립〉에서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 〈독립〉에는 ‘선언하다, 천명하다’ 하면 될 것을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로 풀이하여 사용하였고 ‘창간하다’의 의미로 ‘처음으로 출판하다’를, ‘전하겠다’의 의미로 ‘전할 터이요’를 사용하여 고유어가 늘어났다. 이외에 주어가 별도로 필요없는 문맥에 ‘우리’(14회)를 첨가해 사용하는 것도 고유어가 많아진 이유가 될 수 있다. 〈독립〉은 국문체의 창작문이므로 이 시대의 어느 문헌보다도 구어적 어휘 요소가 많이 사용된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표기만 한글로 되어 있을 뿐 문어에 가까운 어려운 한자 어휘와 한문투 어휘도 많이 사용되었다. ‘대통령이 등국하여’ 같은 신구 어휘의 혼용이 독립신문 어휘 사용의 실태이며, 창간호 논설에만도 “인민, 디언(代言), 취리(聚利), 스스씩성(私私百姓), 편당, 신문상, 인연하다” 등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다.

(10) a. 만일 놈의 보호국이 되거든 독립 이즈논 업서지는 거시오 (18)

b. 원컨디 정부에서 문져 조선 인민 싱각하기를 공평 이즈만 가지고 하고
(16)

위 예문에 나오는 '이즈'는 문맥상으로 보아, '이즈(者)'로 즉 '이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이것'으로 표현하면 될 것을 '이자(者)'로 나타낸다거나, '빈 짜' 대신에 구태여 '공(空)흔 짜'를 쓴 사실들에서 <독립>에 사용된 구어체에 문어체적인 요소가 얼마나 뿌리 깊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황성>에는 사설 전체를 통해 고유어는 '부(所), 아니로디, 험다, 문져(先), 것, 디' 정도이다. 대부분이 기능어이거나 기능어에 가까운 것들이다. 결국 <황성>은 한문에 국문 토를 단 정도라 할 수 있다. <황성>에 일자(一字) 한자 어간으로 된 "無험다(없다), 說험다(말하다), 謂험다(일컫다), 難험다(어렵다), 進험다(나아가다), 異험다(다르다), 推험다(밀다), 然험다(그러하다)" 등과 같은 동사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신문은 문어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갑오경장기의 교과서류에는 고유어는 한글로,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한자어의 한글 표기는 <국소>의 '봉방'(蜂房) 전체를 통하여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심상>의 '밀봉'(密蜂)에는 '후(後), 널판(~板), 일신(一身)' 3개가 나타나는 정도이다. 갑오경장기의 두 교과서 <국소>과 <심상>은 다같이 국한문체의 문장으로 분류되지만 어휘 요소의 분석 결과 <심상>이 <국소>보다 구어체에 가까운 문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유어 사용 비율에 있어서 <심상>(61%)은 <국소>(28%)의 2배이며, 또 <심상>에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한자어의 한글 표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렇다.

<서유> 서(序) 전체에서 '바(所) |, 아니러니, 쓰롬이러니, 곱치, 엇지, 아니리오' 등 국소수의 어휘만 제외하고, 그 외는 모두 한자로 적혀 있다.⁴⁾

<도표 1>에서 표기 요소와 어휘 요소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로스본>과 <독립>, <심상>이 구어체이거나 구어체에 가깝고 <황성>, <국소>가 문어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조규태(1991:752-4)에서는 서유견문의 문체 가운데 어휘 요소의 특징으로 "①한문투어, ②일자(一字) 임자씨 어근, ③일자 풀이씨 어근, ④일자 매김씨 어근, ⑤일자 어찌씨 어근" 이 주로 사용됨을 지적하고 있다.

2) 전이어(轉移語)

국어의 경우 전후 문장의 관계는 주로 의존 형태소(굴절 형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반면, 한문에서는 자립 형태소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이 때 한문에서 전후의 문장관계를 밝혀 주는 어휘를 전이어라 한다. 한문 원문을 국어로 언해할 때 완전히 의역을 하면 한문의 전이어들은 국어에서 굴절 형식으로 대체되지만, 직역을 할 때는 국어의 굴절 형식에다 직역된 전이어들이 첨가되므로 중복표현 형식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전이어들이 많이 나타나면 직역된 문어체라 할 수 있는데, 갑오경장기의 문헌들의 경우 창작문에도 전이어들이 다량으로 사용되어 문어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1) 고(故)로

- (11) a. 거불에 더지나니 고로 그 열음으로써(委火是故因果) (로스 7:20)
 b. 너희 자식은 뒤로써 쫓츠라 고로 더 너희를 판죄히리라(則爾子弟逐鬼羅誰乎彼將譏爾矣) (로스 12:27)
 c. 바른말을 하는 고로 치판관이 위조공초를 몬드러 (독립 34)
 d. 이 地方 스름은 내 우름 소리를 미워하는 故로 나는 다른 地方으로 올무라 하노라 (심상 1:11)
 e. 柱石이라 하니 故로 君子 | 一蟲과 (소학 12)
 f. 石灰되는 緣由 |라 故로 石灰石과 (국소 66)
 g. 경직지 안흔 사둑이라 그런고로 나라 일을 의론한다든지 (독립 37)

<로스본>에 '고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원문에 '故'가 있는 경우가 있고(11a), 원문에는 '故'가 없는데 언해할 때 전후 문맥에 따라 '고로'가 첨가된 경우가 있다(11b). 빈도수의 면에 있어서는 후자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신문류와 교과서류에도 고로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관형사형 어미 아래에 사용된 경우(11c-d)와 종결 어미 다음에 사용된 경우(11e-f)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를 α 형식, 후자를 β 형식이라 하기로 한다.

α 형식은 구문상으로 볼 때 인과관계 표현 형태소가 원인구에만 나타나는 국어구문의 형식이나, 그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가 아니고 자립 형태소라는 점은 중국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절충 형식이다. 이에 반해 β 형식은 결과구에 인과관계 표현

형태소가 나타나므로 구문상으로도 절충 형식이고, 그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α 형식보다 중국어의 영향을 더 받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α 형식이 한자 어휘가 비교적 적게 사용된 <심상>이나 창작문이 주류인 신문류에 많이 나타나고, β 형식이 한자 어휘가 많이 사용된 <소학>, <국소>나 언해문인 성경류에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은 α 형식이 보다 국어적 문체이고 β 형식이 보다 중국어적 문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 <독립>에 현대국어에 한층 더 가까워진 형태인 '그런고로'(11g)가 나타난다.

결국 갑오경장기의 문헌에 α 형식이든 β 형식이든 '고로'가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과, 그 두 형식이 문헌의 성격에 따라 빈도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이 시대 문체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인(因)하야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헌에 아직도 대격 지배형 '~을 인하야'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

- (12) a. 주의 일흠 부탁하야 온 자는 (로스 21:9)
- a'. 주의 일흠으로 오시는 이가 (위원회본 21:9)
- a". 주의 일흠을 인하야 오신 자의게 (직해 21:9)
- b. 바롬을 인하야 振動하야 (국소 12)
- c. 春夏秋冬이 이룰 인하야 變하야 交生하느니라 (심상 3:36)
- d. 汗이 東歐 사흐로 侵入하기에 인하니라 (국소 71)
- e. 余는 是書의 成흠을 인하야 公의 託을 不負흠으로 深幸하노라 (서유 序)

<성경직해>에는 원문에 '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을 인하야' 형식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본>에서 모두 '~으로'로 바뀌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을 인하야'가 '~으로 인하야'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다시 '인하야'가 탈락되어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로스본>에 '~을 인하야' 형식이 전혀 나

5) 남동현(1972:17)은 <두시언해> 주석문의 '~로'를 분석하면서, '인하야'는 본래 '~을 인하야'와 같은 대격 지배형의 차용어 선행되고 '~로 인하야' 형식으로서의 변화는 두시언해 주석문에서 짙어 보인다고 했다.

타나지 않은 사실이 특이하다(12a).

교과서류에도 대격 지배형인 '~을 困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2d)와 같이 '困하다'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빈도수에 있어 아주 적다. <서유>에도 대격 지배 형식만 나타난다(12e).

- (13) a. 따의 리를 인후야 다 스스로 나라를 세우며 (한성 1:17)
- b. 인스리스 스톱의 썩앗긴 빅 되야 인후야 인스리스 속국이 되니(한성 3:15)
- c. 스톱이 팔빅이 되면 인후야 크게 양식과 기계를 모아 (한성 4:10)
- d. 나라 일에 인연후여 싸움들을 흐드리도 (독립 29)
- e. 이 신문을 인연후여 너의 남녀 상하귀천이 모도 조선일을 (독립 1)
- f. 형인오로 인연후야 전국에 잇는 일하는 사람들이 공가가 싸지고 (독립 20)

한편, 신문류에 있어서는 <한성>과 <독립>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성>에는 국문체 부분에만 '인후야'가 나타나는데, 대격 지배형 '~를 인후야' 이외의 형태도 보인다(13b-c). 그런데, <독립>에는 '인연하다'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며 '~에 인연후여(13d), ~를 인연후여(13e), ~으로 인연후야(13f)' 등 3가지 형태로 주로 사용되었다.

<독립>에 '빅성들이 이 세 가지로 인후여 병들이 만히 나서'(독립 34)와 같이 '인후여'가 사용된 예가 나타나기도 하나, 빈도상으로 보아 이것은 '인연후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연후야'는 '인후여'에 비해 서술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씨(以)

한문 원문에 사용된 '以'는 '~으로, ~으로써, 씨' 3가지 형태로 번역된다. '씨'는 '以'를 '쓰다(用)'의 뜻을 지닌 자립 형태소로 잡고 번역한 것인데, '~로 씨'와 '씨'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로씨'와 같은 형태는 '以'를 '~로'와 '씨' 2가지로 번역한 데서 생긴 중복형이라 할 수 있고, '씨' 단독형은 '以之'에서 '之'가 생략된 경우의 번역이나 '可以, 足以, 何以, 是以'의 직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以'의 번역어 가운데 '~으로'가 가장 국어에 가까운 것인 반면,

‘씨’는 한문에 가까운 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으로씨’는 그 중간이라 할 수 있다.

- (14) a. 님 텃국의 열쇠로씨 너를 주나니(我以天國之鑰匙爾) (로스 16:19)
 b. 어찌 씨 셔라(何以立哉) (로스 12:26)
 c. 고변하기 전에 죄병일을 베풀노씨 달내야 현영운을 죄목으로 (독립 84)
 d. 受苦하므로씨 적은 種子를 가지고 (심상 1:8)
 e. 行習을 養成하야 씨 定한 죄에 (국소 35)
 f. 才藝工巧를 不知하야 씨 人世의 風俗을 亂하고 (서유 101)
 g. 孝란 者는 씨 親을 事하는 比오 悌란 者는 씨 長을 事하는 比오 慈란 者는 씨 衆을 使하는 比라 (소학 1)
 h. 한번 싸오지 못하면 죽히 씨 두편의 분홍물 풀지 못하나 (한성 6:7)
 i. 其知하는 者는 教함을 由하야 以然함이라 (서유 100)

성경류 가운데서 <로스본>에 ‘씨’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신문류와 교과서류에도 ‘씨’가 쓰인 용례가 많이 나온다.

‘으로+씨(씨)’(14c-d) 형태와 ‘하야+씨’(14e-f) 형태 사이에 의미·통사상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하야+씨’가 추상적인 ‘방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으로+씨’는 좀 더 구체적인 ‘수단,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과서류 가운데서 <소학>에 직역체인 ‘씨’(14g)가 많이 사용된 것은 <소학>이 가장 문어체적인 문장인 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나, <한성>에 ‘씨’(14h)가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한성>에 실린 글 가운데 창작문 못지 않게 외국 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글, 즉 언해체 문장이기 때문인 것 같다. <서유>가 국한문체임에도 불구하고 ‘以’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14i)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가장 문어체적임을 알 수 있다.

(4) 하여곰

한문에서의 사동 표현은 ‘使, 令’ 등 어휘적 요소로써 하지만, 국어에서는 주로 동사어간에 ‘~게 하다’를 덧붙이거나 사동접사를 첨가해서 표현한다. 그런데, 한문의 사동 표현을 국어로 번역할 때, 의역일 경우에는 국어 방식 즉 동사의 사동 표현을 사용하지만, 직역일 경우에는 한문의 ‘使’나 ‘令’을 ‘~으로 하여곰’ 형태

로 번역하거나, 여기에다 또 동사의 사동 표현을 덧붙여 일종의 중복 표현 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갑오경장기의 문헌들에 '~으로 하여곰'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 (15) a. 미귀의게 시험을 보논디 (로스 4:1)
- a'. 마귀의게 시험을 밧으러 (위원회본 4:1)
- a". 마귀로 하여곰 시험하야(欲魔至試誘) (직해 4:1)
- b. 守臣으로 하여곰 兵丁을 抄幕하여 (한성 1:5)
- c. 의경부 인을 참찬으로 하여곰 두니라 (독립 78)
- d. 人으로 하여곰 아니 알지 못홀 거시오 (소학 11)
- e. 우리들로 하여곰 古今事를 눈으로 말미암아 알게 혼거시나 (심상 3:5)
- f. 其人으로 하여곰 善惡을 先辨하야 (서유 100)

원문이 사동 표현의 문장이 아닌데도 <성경직해>에서만 사동 표현을 했다(15a-a" 참조). 성경류에 '~으로 하여곰' 형태가 적게 사용된 데 비해 신문류와 <심상>에 비교적 많은 예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로 하여곰'의 형태가 원래 직역 문어체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데, 창작문에 쓰일 만큼 구어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시기에 사용된 '~으로 하여곰' 형식은 전체적으로 직역 문어체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밖에 없다.

(5) 더부러

'더부러'는 '더블다'(興)의 부사형으로 '~로 더부러'로 사용될 때는 서술적 기능은 없고 문법적 기능만 갖고 있는 썸이다.

- (16) a. 압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부러 텨국의 돛게 안즈되(與亞伯拉罕以撒雅各席坐於天國) (로스 8:11)
- a'.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곁치 텨국에 안거니와 (위원회본 8:11)
- a". 아바람과 이삭과 야곱과 혼가지로 텨국에 잔치하고 (직해 8:11)
- b. 너 늘 너희와 합씨 하여 (로스 28:20)
- b'. 나 | 널노 더부러 흥상 혼가지로 거하야(予恒居與爾偕) (직해 28:20)
- c. 너 나와 더부러 혼돈식 명치 아니 하였더냐(爾歸不於予定一錢)(직해

20:30)

- d. 俄國이 英國으로 더부러 形勢를 互爭하다가 (한성 1:11)
- e. 직업 업고 한가한 帛성으로 더부러 혹 억지로 나오게 하며 (독립 85)
- f. 朋友로 더부러 交하는 者 | 그 終에 易疎하기론 (소학 22)
- g. 惡友로 더부러 相從은 則 (심상 2:10)

<로스본>(16a)과 <성경직해>(16 b')에 '더부러'가 사용된 예가 나타나는데, 주로 '~로 더부러' 형태이고, '~와 더부러'(16c) 형태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위원회본>(16 a')과 로스본(16b)에 나오는 '~와/~과'는 문법적 기능만 갖고 있던 '더부러'가 탈락되어 만들어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국어 요소 '~와/~과'에 한문 요소인 '더불어'(與)가 덧붙여 만들어진 중복 형식 '~와 더부러'가 문어체적 표현인데 비해, '~와/과'는 구어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로 더부러'가 <한성>(16d)에 빈번하게 사용된 데 반해, <독립>(16e)에는 극소수의 예만 나타나는 점이 비교가 되며, 교과서류(16f-g)에는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는 편이다.

'~로 더부러'가 '~와 더부러'나 '~와'보다 문어체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 형태라면, 이 형태가 <독립>이나 <위원회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이 두 문헌이 다른 문헌에 비해 구어체적 성격이 강함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갑오경장기의 문헌별 '전이어'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도표 2>와 같다(김형철 1987:50).

<도표 2>

출전 항목	성 경 류			신 문 류		교 과 서 류			서 건 유 문
	로스본	성 경 직 해	위 원 회 본	한성 주보	독립 신문	국민 소학	소학 독본	심상 소학	
고 로	○	×	×	○	○	△	△	△	○
인하야	×	○	×	△	○	△	△	△	○
씨	○	△	×	○	△	△	△	△	△
하여꿈	×	△	×	○	○	×	△	○	△
더불어	△	△	△	○	△	△	△	△	×

- ※ ○ :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 × :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 :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한두 번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됨).

<도표 2>에서 항목란의 “고로, 인하여, 써, 하여금, 더부러” 등은 언해에 있어 직역이나 의역이나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한편으로는 문체가 문어체나 구어체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즉 위의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면, 직역이며 문어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의역이며 구어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도표 2>에서 가장 뚜렷하게 변별되는 문헌은 <위원회본>과 <한성>이다. <위원회본>은 번역문인데도 문어체적인 요소가 가장 적고, <한성>은 창작문인데도 문어체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예상 밖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위원회본>의 경우 근원적으로는 번역문이라 할 수밖에 없지만 한문성경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고, <한문성경>, <로스본>, <성경직해>, <영어성경> 등 여러 종류의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한문 직역에서 벗어나 오늘날 성경과 구문상 별 차이가 없는 구어체가 가능했다. <한성>의 경우, 국한문체 기사는 물론 국문체 기사도 대부분 조보(朝報)나 정부의 공문을 번역하거나, 중국이나 일본의 신문 기사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직역체, 문어체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집록 등 창작문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역시 직역체, 문어체 요소가 많이 사용되었다.

Ⅲ. 구문요소

구문 요소는 표기 요소나 어휘 요소만큼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나, 문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 구문 요소는 표기 요소나 어휘 요소가 만들어 내는 결과적인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문장 길이, 단위문 구조(필수성분 수), 단위문 연결구조(접속 어미:전성 어미) 등 문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문 요소를 먼저 살펴보고, 용언의 동명사화 표현, 인용문의 표현 구조, 접속 표현의 중복, 상위문 종결 어미 등에 의한 다양한 문체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1) 구문 요소의 분석

갑오경장기의 문헌별 구문 요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도표 3>과 같다.(김형철

1987:66)

<도표 3>

항 목 문 헌	분 량 (음절수)	문 장 수	문장 길이 (평균 음절수)	필수 성분	서 슬 어 (접속·전성)
로 스 본	293	3	98	77	45:4
독 립 신 문	302	4	76	62	17:14
황 성 신 문	297	3	99	54	21:5
국 민 소 학 독 본	259	4	65	57	24:2
신 정 심 상 소 학	270	5	54	56	24:3

※ 조사 범위는 “로스본(마태복음 8:1-9), 독립신문(창간호 논설 일부:302음절), 황성신문(창간호 사설 일부:297음절), 국민소학독본(23-24 蜂房 일부:259음절), 신정심상소학(3:32-33 蜜蜂 일부:270음절)”이다.

갑오경장기 국어의 구문 요소상의 특징은 문장 길이가 길고, 필수 성분이 많으며, 전성 어미의 사용 비율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즉 단위문의 대부분이 ‘[SP]’와 같이 필수 성분들만으로 단순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위문들의 연결에 있어서도 ‘[[SP] [SP] ... [SP]]’와 같이 주로 접속의 형태로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단순 구조의 단위문들이 평면적으로 접속, 나열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길어진 것이 이 시기 문장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로스본>의 경우 상위인용문 동사 ‘하다’의 활용에 의해 문장이 무척 길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⁶⁾

전성 어미의 사용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문장 구조가 입체적이 아니고 평면적임을 말하는데, 문장 구조의 평면성은 한문 구조의 평면성⁷⁾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갑오경장기 문헌의 문장들은 한문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어체 문장이라 결론 지을 수 있다. 다같이 국문체이면서 <독립>에 비해, <로스본>에 전성 어미의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로스본>이 한문 원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6) 김형철(1985:604-6) 참조.

7) 한문은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어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한자 하나 하나가 문장 내의 위치로서 그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문장 구조의 평면성을 가지는 셈이다(심재기 1975:76).

- c. 千事萬物을 精密히 觀察하기는 眼力을 開호미 要緊호니 (국소 2)
- d. 人의 學호미 本是爲國濟衆호음이라 (소학 3)
- e. 그 구경호을 爲호야 奔走호되 (심상 3:17)
- f. 其國의 事物을 欲知호애 其文子를 不解호미 不可호고 (서유 序)

〈한성〉의 집록(集錄)같은 부분은 대부분이 창작문인데도 동명사화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19)a에서 ‘힘써 사귀고, 나라에 리호다’하면 될 것을 ‘사귀물 힘쓰고, 나라의 리호미 있스죽’으로 표현한 것처럼 동사 ‘사귀다, 리호다’를 동명사 ‘사귀물, 리호미’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에는 국문체의 창작문도 문어체의 성격을 지닌 언해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하물며, 국한문체의 교과서류나 <서유>에 동명사화 표현이 많이 사용됨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감오경장기의 문헌 가운데서 <독립>과 <심상>, <위원회본>에 용언의 동명사화 표현이 비교적 적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헌들이 다른 문헌들에 비해 구어체적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 인용문 표현 구조

국어 문체 양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曰’ 혹은 ‘~가라사대’ 형식으로 나타나는 인용문 표현 형식일 것이다.

- (20) a. 耶蘇 曰 我往醫之 (목해서관본 8:7)
 ㉠ ㉡ ㉢
- b. 예수 일오샤되 넌 가서 곳치리라 호민 (로스 8:7)
 ㉠ ㉡ ㉢ ㉣
- c. 예수 | 더드려 닐으시되 나 | 가서 더를 치료호리라 (직해 8:7)
 ㉠ ㉡ ㉢ ㉣
- d. 글으샤되 나 | 가서 곳쳐 주리라 호신되 (위원회본 8:7)
 ㉠ ㉡ ㉢ ㉣
- e.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개역본 8:7)
 ㉠ ㉡ ㉢
- f. “내가 가서 고쳐 주마”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8:7)
 ㉠ ㉡ ㉢ ㉣
- g.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 하시자 (공동번역 8:7)
 ㉠ ㉡ ㉢

(20)에서 ㉠은 인용의 근거이고, ㉡은 인용을 표시하는 한문의 인용상위문 동사이고, ㉢은 인용의 실제 내용을 나타내는 인용내포문이고, ㉣은 국어의 인용상위문 동사이다. 인용문 표현이 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의 존재 여부, ㉠의 번역 형태와 위치 문제이다.

(1) 인용상위문 동사 '曰'의 존재 여부

인용문이 '㉠+㉡+㉢'으로 구성되어 ㉣이 없는 형식을 α 형식, '㉠+㉡+㉢+㉣'로 ㉣이 첨가된 형식을 β 형식이라 부르기로 한다.

(20)c, e의 α 형식이 한문 구조에 가까운 반면, (20)b, d의 β 형식은 한문 구조에다 국어 구조(서술어 후치 구조)를 덧붙인 절충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언해문의 인용문 형식은 주로 α 형식이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β 형식이 증대되어 <로스본>에는 β 형식이 중심이 된 것 같다. β 형식에서는 서술어가 '㉠'(한문의 서술어)과 '㉣'(국어의 서술어) 2개가 되어서 중복 표현 형식이 되며, 특히 ㉣에 선행하는 ㉡은 문어체 성격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지가 된다.

(20)f, g는 ㉠이 ㉣에 후행하여 상위문 동사로 바뀌면서 문어체적 성격을 벗어난 국어의 보편적인 문장 형식이다. (20)e와 같은 α 형식의 문장이 (20)f(1967년)와 같은 문장이 나오기 직전까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문장이 얼마나 보수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근거가 된다.

(21) a. 예수 골으샤되 또한 기록호여사되 (마귀)~말나 호엿다 호니 (로스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예수 | | 골으샤되 | 경에 | 또 | 벗시되 | (마귀)~말나 | 호엿다 호니 |
| | | | ㉠ | | | ㉡ | | ㉣ |
- b. 十月初八日 朝報云 傳教에 골으스되 去年事를 잊지 참아 말하라.... 못
호는는..... 意를 示하라 호시다 (한성 1:3)
- c. 아라샤 신문 비도모스테가 말호기를..... 아라샤에서 조선 차치홀 무
옴은 업노라 호며 (독립 13)
- d. 古人이 云호되 地形이 四角의 不掩이라호며 又曰 難子와 同호다 호니
(서유 3)
- e. 한 野蠻人이 問曰 矮身老人을 만났느냐 나는 其人을 보지 못호앗시나
短尾호 小狗를 드리고 잇나니라 遊獵者 | 答曰 果然 그러호 슴을 보

- 왔노라 네 엇지 보지 못흔 스름을 如此히 아노노 (국소 2)
- f. 父母 | 戒하야 ㄹ 千歲에 遺芳치 아니흐면 다시 와서 나를 보지 말나
흐더라(국소 53)
- g. 是故로 孟子 | ㄹ 命을 知하는 者는 殿壇下의 立지 아니흐다 흐니(소
 학 5)
- h. 부영이 對答하야 갈오딘 이 地方 스름은 내 우름소름을 미워하는 故로
 나는 다른 地方으로 올무라 흐노라 흐니 (심상 1:11)

(21)b에는 '朝報云 傳敎에 골오스딘'로 되어 있어, 출전이 '朝報에 실려 있는 傳敎'가 되어 이중인용문 구조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朝報=傳敎'로 보아 단순인용문 구조로 사용되었다. 즉 "傳敎에 골오사딘... 意를 示하라 흐시다"와 같은 구조이다.

㉠ ㉡ ㉢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헌에는 β형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경직해>에는 α형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국소>에는 앞부분에 α형식이 많이 사용되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β형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2) 인용상위문 동사 '曰'의 번역 형태와 위치

- (22) a. 한 野蠻人이 問曰, 遊獵者 | 答曰 (국소 2)
 b. 孔子 | ㄹ (소학 5)
 c. 놀나 골오딘 (국소 35)
 d. 부영이 對答하야 갈오딘, 비둘기 우서 갈오딘 (심상 1:11)
 e. 古人이 云호딘 (서유 3)
 f. 啞人이 壁板에 書하야 曰호딘 (서유 450)
- (23) a. 傳敎에 갈오스딘 (1:3)
 b. 日本時事新報에 갈오딘 (1:15)
 c. 東京時事新報에 云 (1:12)
 d. 彼得堡報에 云호딘 (24:12)
 e. 신보에 일오딘 (17:11)
 f. 일본 시스신보에 일너시되 (2:8)
 g. 흥의 아희 노하야 알 (31:8)
 h. 近日 各國新報의 論說호딘 (1:11)
 i. 이는 日本時事新報의 所記라 (2:14)

- b. 일이 아직도 결말이 안나스나 그러나 풍파는 면할 듯하다더라 (독립3)
- c. 이 시는 뭇고리처럼 조흔 소리도 못흐나 그러나 나무에 나는 버러지를 잡아 먹으니 (국소 59)
- d. 後에 用흐는 바 나 그러나 本源인則 (소학 6)
- e. 侵睡 | 穢오 便安흐나 그러나 數日以來로 (심상 3:14)
- f. 差誤한 失이 存흐기 亦易흐나 然흐나 譬호건디 山을 蠶흠과 同호야 (서유序)
- g. 內務堂上과 다못 京北堂上으로 호여곰 (한성 1:11)
- h. 許多호 草鞋와 밧 空石 等を (심상 3:34)

(27)a-h는 각 문헌에 나타나는 접속어(문접속어 및 구접속어) 중복 사용의 경우이다. 이러한 접속어의 중복 사용 현상도 한문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어의 접속 기능은 의존 형태소(접속 어미)로 표현되는데, 한문에 있어서는 자립 형태소로 표현된다. 한문을 번역할 때 국어 문맥에 따라 용언에 접속 어미를 연결시키고, 여기에 한문에서 접속 기능을 담당하는 자립 형태소를 번역하여 덧붙이기 때문에 결국 중복 표현이 되고 만다. 이러한 중복 사용 현상은 언해문뿐만 아니라 창작문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문어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징표가 된다.

이 시기에 <한성>, <서유> 등 대부분의 문헌에는 중복 형식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심상>에는 중복 형식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심상>이 다른 문헌에 비해 구어체적 성격이 강하고 표현이 세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접속의 경우 (27)g는 '칙유공록'(勅諭恭錄)에 나오는 문장으로 원래 한문으로 쓰여진 글을 한성주보에 실을 때 국한문체로 번역한 까닭에 한문 원문의 '與'를 '다못'으로 직역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못'은 항상 '~와 다못'과 '~로 다못'의 형식으로만 사용된다. (27)h에 사용된 '밧'은 '及'의 직역어인데, <심상>에 주로 나타난다.

5) 상위문의 종결 어미

갑오경장기의 문헌들은 언해문 문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언해문에는 성격상 인용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위문 종결 어미이고, 인용문(내포문) 종결 어미와 인용상위문의 종결 어미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도 한다.⁸⁾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8) a. 傳教에 굴으사되..... 허라 하시다 (한성 1:3)
- b. 시찰관 인석보가 삼월 삼일 장연 짜에서 난민의게 피히허다 (독립 1)
- c. 니각주스 오달영이 죽다 (독립 11)

종결 어미 ‘~다’는 이 시기의 대부분의 문헌에 내포문에만 나타난다. <한성>과 <독립>에 상위문 종결 어미로 ‘~다’가 사용되었는데(28a-c), 그 사용이 관보에 국한되어 있다. 관보는 원래 한문으로 작성된 것을 번역하여 신문에 실은 것으로, 특별한 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시상, 서법상으로 중화된 청자 중립적 어미 ‘~다’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라’의 경우 성경에 상위문과 내포문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빈도수(각각 27%, 29%)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는 화자나 화재(話才)의 중심 인물이 절대자인 예수이므로 명령법 어미 ‘~라’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라’는 문헌의 성격에 관계없이 골고루 높은 빈도수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명사나 명사구를 서술어로 기능하게 하는 종결 어미로 시상이나 서법에 있어서 중화된 형태이다. <한성>의 기사 제목이 명사로 끝나거나 ‘巴威里王이 自殺히미라’ (한성 24:13)에서와 같이 ‘명사(형)+이라’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사 제목이 시상이나 서법상 중화된 형태를 취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29) a. 데자가 스싱갓고 종이 주인 갓타면 족히니라 (로스 10:24)
- b. 其中에 鐘路는 商賈가 輻輳하야 第一繁華히니라 (국소 4)
- c. 長後에 事業은 愛君과 愛國에 더함이 업느니라 (소학 1)

8) ‘로스본’에서 상위문 종결 어미와 내포문 종결 어미의 사용 실태를 통계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마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에서 다섯 번 이상 나온 종결 어미의 통계임).

	상 위 문	내 포 문		상 위 문	내 포 문
다	×	27(28%)	리라	13(7%)	11(11%)
라	50(27%)	28(29%)	나냐	6(3%)	6(6%)
(이)라	15(8%)	7(7%)	랴	13(7%)	×
니라	37(20%)	×	기타	21(12%)	18(19%)
다라	29(16%)	×	합계	84(100%)	97(100%)

- d. 世界萬國中에 獨立國이 許多하니 우리 大朝鮮國도 其中의 一國이라 檀笑
 衡과 三韓과 羅麗濟와 高麗를 지난 古國이오 太祖大王이 開國하신 後 五
 百有餘年에 王統이 連續한 나라이라 吾等은 如此한 나라에 生하여 今日
 에 와서 世界萬國과 修好通商하여 富強을 닦토는 旣에 當하얏시니 우리
 王國에 사는 臣民의 最急務는 다만 學業을 힘쓰기에 잇느니라 (국소 1)

성경과 교과서류에 원칙법 어미 '~니라'가 많이 사용되었다. 원칙법이 화자는 물론 청자도 인정하는 객관적 믿음에 바탕을 둔 일방적 통보 행위라 한다면, 이것이 교훈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경과 교과서류에 많이 사용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9)d에서 '~니라'는 문장 종결 어미 기능에다 담화 종결 어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류에서 '~니라'로 끝난 문장 뒤에는 대부분 여백을 두고 있는 사실에서도 '~니라'가 담화 종결의 기능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0) a. 그 처를 취하여다가 동침치 안코 이달을 나오며 밋쳐 일흠을 칭하여 예
 수라 하더라 (로스 1:25)
 b. 규칙은 잇서 무어세 쓸는지 몰오겠더라 (독립1)
 c. 정부에서 삼가호심을 바라노라고 하엿더라 (독립30)
 d. 외부대신 커-손씨가 하원에서 말하기를 풍파는 면홀 듯하더라 (독립 3)

(30)a,b에 사용된 '~다/더라'는 화자의 직접적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 사실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단정에 사용된 어미이다. 성경에는 대부분 이런 성격으로 사용되었고, 신문류에도 이러한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상당수 나타난다. 그러나 신문류에 사용된 (30)c,d의 '~더라'는 보고법 어미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이다. '~하더라'는 기사 작성자가 사건을 보았거나 겪은 것을 기록한 형식이므로 직접전달체라 할 수 있고, '~다하더라' 혹은 '~다더라'는 기사 작성자가 전해 들은 것을 중계하는 형식이므로 이를 간접전달체라 할 수 있다.⁹⁾

- (31) a. 신문 보고 스펀이는 속히 생명을 보내기 바라운 (독립1)

9) 이석주(1990:373-4) 참조.

- b. 한문으로 한 편지는 당초에 상관이니훈(독립1)
- c. 도로혀 樂이 되옵느이다(심상 1:2)
- d. 차외에 동남간에 남소문이 잇습느이다(심상 1:3)
- e. 다만 勉勵할 무음이 업는 緣故로 그러흐오이다(심상 1:2)
- f. 亦是 이 비들기의게 우슴을 보오리다(심상 1:12)

(31)a, b에 사용된 '~옵/흠'은 명사형의 독특한 종결 어미로, 관공서의 공고문이나 일반의 광고문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도 쓰인다.

<심상>에는 '~옵/습느이다, ~오/소이다, ~오리다' 등과 같이 독자를 깎듯이 대접해 주는 존대법 어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교과서에 교육적 효과를 위해 사용된 문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각 문헌에서 상위문 종결 어미의 빈도수를 조사해 본 결과는 <도표 4>와 같다(김형철 1987: 85).

<도표4>

출전 어미	로스본	한 심	독 립	국 소	소 학	심 상	서 유
다		23(6.4%)	18(4.9%)				
라	50(27.1%)	1	3	1			
이라	15(8.1%)	101(28.5%)	65(17.8%)	68(3%)	10(10%)	9(9%)	77(77%)
나라	37(20.1%)	18	13	76(38%)	51(51%)	5	
더라	29(15.7%)	118(33.3%)	123(33.7%)	3			
노라		26(7.3%)	29(7.9%)	6	1		
리라	13		3	1	7		
ㄴ지라		30(8.4%)	13	6	5		13(13%)
옵			48(13.2%)				
오/소이다						24(24%)	
느이다						28(28%)	
기타	40(21.7%)	37(10.4%)	49(13.4%)	39(19.5%)	26(26%)	27(27%)	10(10%)
합 계	184	354	364	200	100	100	100

※ 종결 어미는 각 문헌에서 빈도수 5위 내에 드는 것 가운데서 선택된 것이며, 조사 범위는 “로스본(마태복음 1장-10장), 한성주보(국문체, 국한문체 기사 전체), 독립신문(제1권 1호-10호), 국민소학독본(처음 200개 문장), 소학독본(처음 100개 문장), 신정심상소학(처음 100개 문장), 서유견문(처음 100개 문장)” 등이다.

갑오경장기 문헌의 상위문 종결 어미 사용 양상의 특징을 어미 사용의 다양성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소>, <소학>, <서유>의 경우 한두 개 어미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어체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서유견문의 경우 '~이라'의 사용 비율이 77%에 달함), <로스본>과 <심상>이 중간 성격이고, 신문류의 경우 여러 종류의 어미가 사용되고 있어 구어체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라, ~더라, ~니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명령법 어미로는 '~아/어라' 대신에 '~라'가 쓰이고 있다(특히 성격). '~다'가 나타나지만 이는 용언 어간에 직접 연결된 형태로 청자 중립적 문맥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종결 어미 사용 양상에서 볼 때, 이 시기의 국어 문장은 문어체적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IV. 맺음말

갑오경장기의 문체는, 표기 요소의 면에서는 한문체의 쇠퇴와 국문체의 발전이라는 상반된 문체의 갈등 속에서 국한문체가 공식적인 문체로 확대되는 현상을 그 특징으로 하며, 어휘 요소 및 구문 요소의 면에서는 문헌별 글의 종류별에 따라 다양한 문체들이 혼재하는 현상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갑오경장과 그 시기의 국한문체가 국어 문체 발달에 끼친 공과는 '국문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한문체의 범위를 앞의 예문 (1), (2) 즉 직역문어체(현토체 국한문체)로 좁혀 잡을 때는 공보다 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갑오경장기에 이 문체가 철저히 일본의 영향 아래 성립되었고, 문자 사용면에서도 역사상 가장 후퇴한 형식의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한문체의 범위를 예문 (3), (4) 즉 의역문어체 내지 구어체까지 넓게 잡는다면 이것은 갑오경장기에 많은 역할을 해낸 문체이고, 공식 문체가 한문체에서 국문체로 정착되는 과도기의 문체로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역할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국문체를 국가의 공식 문체로 하겠다고 천명한 지 반 세기 후에 다시 한글전용을 국가의 공식 문자정책으로 천명하였다.¹⁰⁾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반 세기가 지난 오늘날 여전히 한글전용 문제가 문자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공식 문

10)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14조(律勅 總以國文爲本附漢譯 或混用國漢文)로 국문체가 공식 문체임을 선언하였고,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로 한글전용이 공식 문체임을 다시 천명하였다.

체라는 것이 국민들의 문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갑오경장이 국어문체에 미친 영향은 국문체를 공식 문체로 천명하고 국한문체를 공식적인 문체로 확대 보급한 직접적인 측면보다 '개화'나 '계몽' 사상을 통해 수많은 출판물의 공급과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문자의 기능 부담량을 높혀, 다양한 문체가 사용될 토대를 마련한 간접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헌 자료 및 약호

- 예수성교전서(1887), 로스 외, 총신대학 도서관, <로스본>
 성경직해(1892-7), 민아오스딩 감준, 한국교회사 연구소 영인(1984), <직해>
 신약전서(1900), 번역위원회, 숭실대 박물관, <위원회본>
 한성주보(1886), 통리아문 박문국,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영인(1983), <한성>
 독립신문(1896), 서재필, 세계일보사 축쇄 영인(1959), <독립>
 황성신문(1898), 남궁역 외, 한국문화개발사 영인(1973), <황성>
 국민소학독본(1895), 학부편집국, 아세아문화사 영인(1982), <국소>
 소학독본(1895), 학부편집국, 아세아문화사 영인(1982), <소학>
 신정심상소학(1895), 학부편집국, 아세아문화사 영인(1982), <심상>
 서유견문(1895), 유길준, 경인문화사 영인(1969), <서유>
 한문성경(1858), 상해 묵해서관본, <묵해서관본>
 <개역본>(1937), <새번역>(1967), <공동번역>(1971)

참 고 문 헌

- 김영덕(1971), “한국 초기 성서 번역체 연구”, 한국문화연구원은총 18, 서울:이화여대.
 김완진(1983), “한국어 문체의 발달”, 한국어문의 제문제, 서울:일지사.
 김인선(1991), “갑오경장 전후 개화파의 한글 사용-독립신문에서의 한글전용 배경”, 주시경학보 8, 서울:담출판사.
 김종택(1983), “국어 표현구조의 변천 연구”, 동양문화연구 10, 대구:경북대
 ——(1985), “한글은 문자 구실을 어떻게 해 왔나?”, 건대어문학 9·10집, 서울:건국대.

- 김형철(1985), "19세기 국어 문체의 한 양상", 소당천시권박사 화갑기념논총, 서울:형설출판사.
- (1987), "19세기말 국어의 문체·구문·어휘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학원.
- (1991), "개화기 문헌의 인용문 표현 연구", 들머서재국박사 환갑기념논문집, 대구:계명대출판부.
- 김홍수(1988), "언어학적 문체론의 위상과 과제", 국어국문학100, 서울:국어국문학회.
- (1992), "문체 연구사",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 서울:집문당.
- 남기심(1977), "개화기 국어의 문체에 대하여", 연세교육과학 12, 서울:연세대.
- 남풍현(1972), "'두시언해' 주석문의 '~로'에 대한 고찰", 단대논문집 6, 서울:단국대.
- 려중동(1977), "19세기 '한자-한글 섞어쓰기' 줄거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15, 광주:한국언어문학회.
- 민현식(1984), "개화기 국어의 문체-신소설,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를 중심으로", 강릉어문학 1, 강릉:강릉대 국어국문학과.
- (1991), "개화기 국어 문체의 다양성과 그 기술의 균형을 위한 재검토",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공동주제 발표 논문.
- (1993), "개화기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서울:문학과 지성사.
- (199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서울:국어국문학회.
- 심재기(1975), "내간체 문장에 관한 고찰(1)", 동양학 5, 서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1992), "개화기 교과서 문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서울:국어국문학회.
- (1992), "개화기 문체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13, 서울:서울대.
- 유문수(1975), "어휘상으로 본 한국 개화기 문장의 문체론적 고찰-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 이기문(1984), "개화기의 국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서울대.
- (1989),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주시경학보 4, 주시경연구소, 서울:탑출판사.
- 이석주(1990), "기사 문장의 변천", 언론연구원 연구서 2, 서울:한국언론연구원.

- 전재호(1989), “성서 언어의 변천과 올바른 이해”, 어문논총 23, 대구: 경북대
- 조규태(1991), “서유견문의 문체”, 들메서재극박사 환갑기념논문집, 대구: 계명대출판부.
- (1992), “일제 시대의 국한 혼용문 연구”, 배달말 17, 진주: 배달말학회.
- 최태영(1986), “초기 번역 성경 연구 III”, 김민수교수 회갑기념논총, 서울: 탑출판사.
- 표성수(1971), “한글 성서 문체의 형성 및 변천 과정에 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